

《얼굴 반찬》 독서지도안



오늘 당신의 밥상머리에는 어떤 얼굴 반찬이 있나요?
따뜻한 밥 한 끼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 주는 시 그림책!

- 작가_ 공광규 시 | 주유진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술)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요즘 우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바쁩니다. 직장과 학교, 집을 오가며 늘 시간에 쫓기죠. 저마다 일정이 바쁘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릅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때는 명절이 아니면 외식할 때뿐인 듯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얼굴을 바라본 게 언제인가요? 어제저녁 모여 다 같이 식사는 했나요?

《얼굴 반찬》은 과거와 현재 달라진 ‘밥상’ 모습을 통해 가족 또는 공동 사회의 단절을 생생히 보여 주는 시 그림책입니다. 공광규 시인은 시인다운 섬세한 관찰과 기발한 풍자로 가족 공동체가 약화하는 현상을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여기에 이국적 색감과 질감으로 입체적 상상력을 더한 독특한 삽화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옛날 우리 밥상머리는 늘 시끌벅적거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3대가 웅기종기 모여 앉아 얼굴을 마주 보며 밥을 먹었죠. 아이들끼리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 더 먹으려고 티격태격하다가 부모님께 밥상머리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풀잎 반찬을 먹어도 배도 마음도 금세 보름달처럼 따뜻하게 차올랐고요. 오늘 당신의 밥상머리에는 어떤 얼굴 반찬이 있나요?

이 책은 ‘얼굴 반찬’이라는 특이한 소재를 통해 달라진 밥상 풍경을 전하며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화 된 시대상을 여실히 잘 보여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아름다운 일상은 우리의 메말라가는 감각을 환기하고, 각박한 정서를 톡톡 자극합니다. 독자는 켜켜이 쌓여 있는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과 역사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나와 가족을 새로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될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 1학년 1학기 국어 2. 재미있는 글씨
 - 7. 생각을 나타내요
 - 1학년 2학기 국어 2.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 지도 요점 :

예전에는 2대 또는 3대가 한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게다가 가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도 방문하고, 먼 친척들도 찾아와 끼니때면 함께 식사했지요. 이웃과의 왕래도 찾아서 서로 서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오가며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일도 많았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밥상머리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 하나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다음 중 옛날 밥상머리에 놓여 있던 얼굴 반찬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할아버지
- ② 할머니
- ③ 형
- ④ AI 인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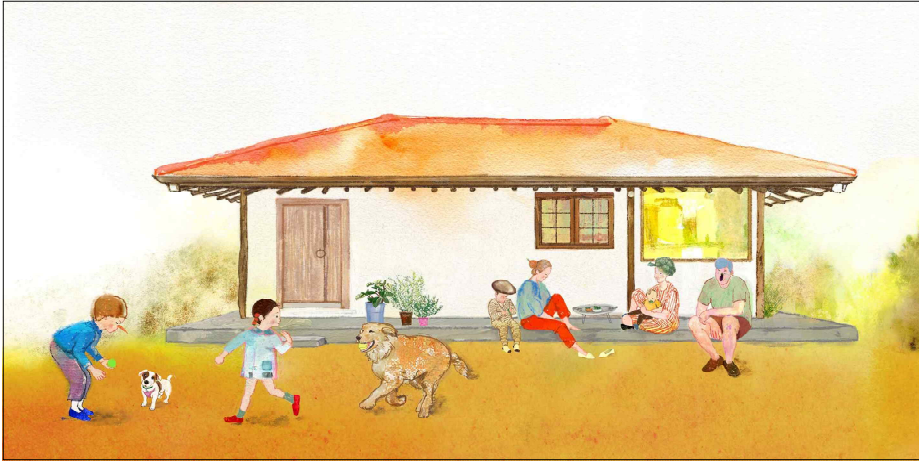
(2)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던 이는 누구인가요?



- ① 선생님
- ② 이웃집 아저씨
- ③ 친구
- ④ 누나

▶ -----

(3)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은 밥상머리에 무엇처럼 앉아 있기도 했나요?



- ① 보양식
- ② 특식
- ③ 외식
- ④ 급식

▶ -----

(4) 아들도 딸도 아내도 모두 밥을 무엇처럼 퍼 넣고 나갔나요?



- ① 사료
- ② 모래
- ③ 알약
- ④ 우유

▶ -----

4. 확장활동

(1)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핵가족화되고, 이웃과의 단절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가족끼리도 시간 맞춰 같은 식탁에 앉아 밥 한 끼 먹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2) 식탁은 배고픔을 채워 주는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정서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오가는 사이 기쁨과 근심, 걱정이 함께 오가는 곳이니깐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얼굴 반찬》에는 토마토 머리와 당근 코, 호박 모자 등 개성 넘치는 얼굴들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얼굴은 어떤 채소가 잘 어울리나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④ AI 인형 | (2) ② 이웃집 아저씨 | (3) ③ 외식 | (4) ① 사료

확장활동

- (1) 야근을 자주 하는 아빠와 꼭 저녁을 함께 먹고 싶어요.
공부하느라 바쁜 언니와 꼭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등
- (2) 내 밥 위에 할아버지가 생선을 올려주었을 때 기뻐어요.
마지막 남은 계란말이를 오빠가 양보해 줘서 좋았어요. 등
- (3) 우리 엄마는 뽀글뽀글 양배추 머리 모양이에요.
우리 오빠가 웃으면 옥수수를 닮은 가지런한 이가 눈에 띄어요. 등